美 하버드·MIT, 반전 텐트 농성 시위대에 최후 통첩

대학 측, 자진 해산 불응시 정학 경고 '긴장 고조'
'반전시위 진앙' 컬럼비아대, 결국 졸업행사 취소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전쟁 반대 텐트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 해산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MIT)는 시위대에 불응시 처벌 방침을 전하며 농성 텐트를 자진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시카고대에선 일부 교수진이 반전 시위대를 옹호하며 대학 측이 농성 텐트의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교내 시위대에 텐트 농성장에서 철수하라고 최후 통보했다.

철수하지 않을 경우 정학 조치를 취하고, 이미 징계 전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가중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콘블루스 총장은 경고했다.

하버드대도 이날 농성 텐트 시위대를 향해 철수를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학 등 징계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임시총장은 성명에서 "텐트 농성의 지속은 우리 대학 교육환경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를 장기화하려는 학생들은 정학 등 징계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동부의 명문대에서도 친(親)팔레스타인 학생들의 가자전쟁 반대 텐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이 연중 최대 행사인 졸업식을 앞두고 시위를 끝내고자 최후 통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욕의 컬럼비아대도 지난달 29일 오후까지 농성장을 해산하라고 최종 시한을 통첩한 뒤 자진 해산을 거부한 학생들을 상대로 예정대로 정학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텐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에 학생들은 캠퍼스 건물인 해밀턴 홀을 기습 점거했지만, 하루 만에 경찰이 진입해 점검 농성자 등 시위대 100여 명을 체포했다.

컬럼비아대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전체 졸업생이 참석하는 공식 졸업식 행사를 취소하고 여러 날에 걸쳐 단과대학 주관하에 소규모 행사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격렬한 반전 시위로 90여명이 체포된 로스앤젤레스(LA)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역시 거센 시위가 지속되면서 공식 졸업행사를 취소해야 했다.

MIT와 하버드대의 경우 시위대에 해산 통보 후 컬럼비아대처럼 캠퍼스에 경찰 투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의 텐트를 강제 철거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수십명이 연행된 바 있다.

버지니아대학에서도 지난 4일 해산을 거부한 농성 텐트촌에 경찰이 투입돼 25명이 연행됐다.

대부분 대학이 졸업식을 앞두고 텐트 농성자들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교수진이 반전 시위 학생들을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다.

시카고대 일부 교수진과 교직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려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폴 알리비사토스 시카고대 총장은 지난 3일 학내 친팔레스타인 농성 텐트촌이 지속될 수 없다며 자진해산을 촉구하고 불응 시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美, 보잉 787 드림라이너 결함 조사

해당 검사, 연료탱크 부근의 전기 사고 막기 위한 것과 관련돼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이 잇단 사고로 논란이 된 가운데, 미 당국이 이번에는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기종과 관련해 새로운 조사에 들어갔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보잉은 최근 자사 직원이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한 일부 검사를 건너뛰고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 당국에 알렸고, 미 연방항공청(FAA)이 조사에 나섰다.

소식통들은 WSJ 인터뷰에서 해당 검사가 연료탱크 부근의 전기 사고를 막기 위한 부분과 관련 있다고 전했다. 여객기에는 번개 등과 관련한 연료탱크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가 있다.

블룸버그는 해당 검사가 날개와 본체를 연결하는 부분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보잉은 지난해까지 1천110대의 787 드림라이너를 인도했는데, 이 가운데 450대 가량이 이번 사안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다만 현재 고객 수송에 사용 중인 787 드림라이너 가운데 검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기체가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FAA는 보잉 측이 생산 중인 모든 787 드림라이너 기종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잉의 787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콧 스토커는 지난달 29일 내부 메시지를 통해 현재 운항 중인 787 드림라이너 가운데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문제를 보고하도록 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번 사안을 인지했으며 신속히 FAA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명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해 회사 정책을 위반했음을 알게 됐다"며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지난 1월 177명이 탑승한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도어 플러그'로 불리는 객실 내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성 문제에 직면했고, FAA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FAA는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보잉 주가가 올해 들어 30% 넘게 떨어진 가운데, 6일에도 관련 보도 여파 속에 0.78%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남아공서 공사중이던 아파트 붕괴

2명 사망·50여명 매몰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동부 해안 도시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2명이 숨지고 50여명이 잔해 속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에 위치한 도시 조지에서 공사 중이던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공사 인력은 총 7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은 입원 뒤 사망했다고 시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20명의 상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이들 중 다수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전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는 아직 인부 등 53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급파된 구조대원 100여명이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잔해를 들어올리기 위해 크레인 등 장비가 동원됐으며, 탐지견을 이용한 수색도 이뤄지고 있다.

건물의 붕괴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앨런 윈드 웨스턴케이프주 주지사는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이 제공됐다"며 "현재 당국자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만, 7.2 강진 이후 한 달간 여진 1천300회 넘어

지난달 3일 규모 7.2 강진 이후 한 달 넘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대만 동부 화롄(花蓮)현 인근 해역에서 6일 오후 규모 5.9의 지진이 잇따라 관측됐다.

대만 중앙기상서(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5분(이하 현지시각)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26㎞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다.

7분 뒤인 오후 5시52분에는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27.8㎞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이어졌다.

두 차례 지진의 진원 깊이는 각각 15.6㎞와 16.1㎞로 측정됐다.

쉬리원 중앙기상서 지진모니터링센터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의 지진이 지난달 3일 규모 7.2 지진의 진원 부근에서 발생한 것이자 당시 지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했다.

쉬 부주임은 "최근 여진 활동이 남북 방향으로 응력(應力·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저항하기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 조정이 진행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지진 당국은 지난달 3일 첫 지진이 발생한 뒤 이날 오후 6시23분까지 총 1천371회의 주진·여진이 이어졌고, 이 가운데 지진이 현저히 느껴진 경우는 345회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無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